



김명섭
국립부산검역소 감천지소장

입 · 출국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역’

검역(quarantine)이란?

검역(檢疫)이란 용어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병된 사스(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ever Acute Respiratory Syndrome)가 세계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는 지금 사스 공포에 휩싸여 있다. 우리 나라도 사스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스공포와 함께 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검역이란 한마디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의 감염 유무를 검사하고 소독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나라로부터 전염병이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항공기, 열차와 그 승무원 및 승객과 하물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을 포함한 각종 외래전염병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 전염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만약 전염병이 감염된 경우에는 이를 소독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검역은 전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역의 유래

검역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페스트(흑사병)로부터 해안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전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베니스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에 접안하기 전 40일동안 억류조치를 당하였으며 40일 이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후에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억류기간 40일을 의미하는 ‘quarisma’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83년 마르세이유에서는 입항한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병 전염이 의심이 있는 배, 승객 및 하물을 40일동안 억류해서 깨끗한 공기와 일광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된 이후 환자 격리시설, 소독소 구비 등 전염병 격리 체계가 도입되어 르네상스 시대부터 검역제도가 공중보건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되게 되었다.

국제적인 교역의 증가로 국가간에 전파되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851년에 파리에서 제1차 국제 위생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지중해 연안의 12개국 대표들이 이에 참석하여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969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천연두를 국제 검역 전염병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1976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최종 발생한 검역 전염병 천연두는 1987년 검역 전염병에서 삭제되어 현재 콜레라, 페스트, 황열만 검역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46년에 부산, 목포, 인천 지역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해방이후 1949년 이후 현재 국제공항 및 국제항에 13개 검역소가 설치되어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의 중요성

검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염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검역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된 국제보건규칙(IHR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에 의해 세계각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규약 업무로써 각 나라별로 외래 전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철저한 검역조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역대상 선박, 항공기 등에는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나 검역관의 허가를 받지 않

고서는 그 선박, 항공기에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도록 각 나라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도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검역소에서 전염병 감염조사, 전염병 예방접종, 각종 병원균 색출검사, 전염병 매개 위생해충 박멸소독, 전염병 예방 상담 등 검역업무가 검역관에 의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여행시 유의사항

➡ 해외를 여행할 때는 미리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는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출국 10~14일전에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전염병은 음식, 곤충, 동물, 사람, 환경 등 여러경로를 통하여 전염된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전염병 감염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여행지에서는 물을 반드시 끓여서 먹고 생식을 삼가해야 한다.

➡ 여행 중에는 모기 등 위생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말라리아 유행지를 여행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여행 전부터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 여행에 앞서 자기 건강에 대한 체크와 검역 및 전염병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 PPFK